

# 월드뉴스 (해외)

## News Point

### 1) 일반

#### □ 일본, 데이터베이스(DB) 및 DB검색 등 서비스업종 시장개방 계획발표 □

일본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협상에서 금융, 통신, 변호사등 약 1백개업종의 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와함께 최혜국대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항해운송 및 화물취급 등 2개분야로 제한, 미국과 유럽공동체(EC)에 양보하기로 했다. 日정부는 이미 광공업분야 개방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어 초점인 농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시장개방계획 국별표를 모두 우루과이라운드에 제

스분야 국별표 제출기한내에 개방계획을 밝힘으로써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미국과 EC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이들 국가로부터 양보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서비스분야 개방업종 가운데 주요업종은 후생연금기금 운용규제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데이터베이스검색, 외항화물, 여객운송, 해운보조서비스, 성인대상 생애교육, 데이터베이스, 변호사등이다. 최혜국대우 적용제외 업종은 2개로 제한, 미국과 EC의 10여개 이상에 비해 큰 양보를 했다. 日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시장 개방 업종은 다음과 같다.

#### \*비지니스

\*직업서비스=법무, 회계, 엔지니어링

\*컴퓨터관련=소프트웨어실행, 데이터처리등

\*연구개발=사회과학, 인문과학

\*부동산

\*렌탈

\*기타 서비스=광고, 경영컨설팅등

\*통신

\*전기통신=팩시밀리, 전자메일등

\*오디오, 비주얼=영화, 비디오제작배급등

\*건설 관련=빌딩건설, 토목건축등

\*유통=도·소매, 프렌차이즈등

\*교육=생애교육 등

\*환경=오수처리, 공중위생등

\*금융=보험관련, 은행, 증권등

\*건강관련=병원, 사회개호등

\*관광, 여행=호텔, 레스토랑, 여행가이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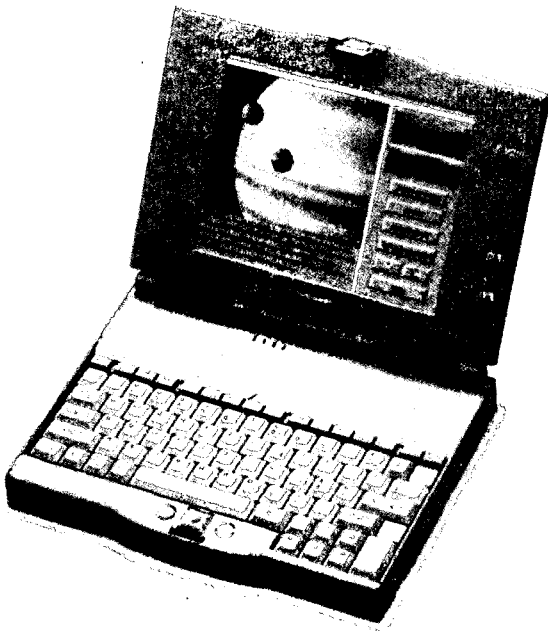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오락, 보도기관, 도서관등

\*운수

\*해운(화물, 여객운송등)

\*내항수송(보조서비스등)

\*항공(항공기 보조서비스등)



출한 셈이다. 이번에 제출된 서비스 분야 국별표는 日정부의 최종안으로 금융, 전기통신, 운수, 교육, 유통, 컴퓨터, 부동산등 다방면에 걸쳐 1백여 업종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26일까지로 된 서비

## 2) 데이터뱅크별 소식

### ▣ 미국 CAS, "화학 규제물질 리스트DB" 3종 「CHEMLIST DB」에 추가제공 ▣

미국의 CAS(Cheical Abstracts Service)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화학관련 규제물질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에 들어갔다.

- ▲ 해양 오염물질 리스트를 포함한 미국 운·수송(US. DOT)과 관련한 위험물질 규격
- ▲ 뉴저지 위험물질 리스트
- ▲ 유럽의 요주의 화학물질 리스트를 다룬 "ELINCS"(European List of Notified Chemical Substances).

### ▣ 미국 DOW JONES, \*[DOWNVISION]을 통해 뉴욕타임즈 기사 서비스 ▣

미국 정보서비스업체인 다우존스사는 뉴욕 타임즈사와 계약을 맺고 '94년 봄부터 자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뉴욕타임즈의 기사내용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뉴욕 타임즈에 게재된 내용의 90%정도가 발행 당일 다우존스의 정보 서비스 "다우 비전(DOWVISION)"을 통해 제공된다. 다우존스는 이제까지 월 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 USA투데이, LA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의 신문들을 자사의 정보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 STNInternational ▣

#### 1. STN에 "INVESTEXT" DB서비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업 및 업계동향 리포트들을 전문(Full-text)으로 서비스하는 INVESTEXT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화학관련 과학기술 전문 데이터뱅크인 STN International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THOMSON FINANCIAL SERVICES社에서 제작 서비스하는 것으로 STN을 통하여 보다 일괄적으로 과학기술을 포함한 비즈니스 정보까지 검색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DB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280여 투자기관에서 분석 정리한 보고서가 현재 50만가지 이상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1982년부터 과거자료가 포함되며 매주 1천 5백여 레코드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는 내·외의 동향은 물론 전세계의 기업체 동향과 산업, 제품, 지역의 특성 등을 리포트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다.

#### 2. INTERNET에 STN DB "SUMMARY SHEETS" 서비스

STN International은 미국의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주관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160여 STN 데이터베이스들의 "DB SUMMARY SHEETS"를 아스키(ASCII)와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버전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InterNet)사용자들은 STN의 DB설명문과 목차, 검색필드, 각화일의 문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터넷의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통하여 제공되며, 어드레스는 info.cas.org 이나 134.243.5.70이다. 여기에는 README화일 즉, 참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한다.

#### 3. STN에 미국 등록 의약품집(USAN) 및 약전(USP)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미국에서 등록된 의약품들을 한데 묶어놓은 등록의약품집을 DB화한 USAN(US. Adopted Names) 데이터베이스와 미국의 의약품 규격집(약전=USP : U.S.Pharmacopeia) 데이터베이스가 STN International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이 DB들은 미국 Pharmacopeial Convention, Inc.에서 제작하는 것으로서 건강 및 의약품관련 산업에서는 매우 권위있는 약품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 ▣ TELESCAN社 온라인 업계에서 두번째로 "TSCN"으로 증시에 상장 ▣

지난 11월달, 미국의 TELESCAN社는 증권협회(NASD)에서 증권시세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알리는 정보서비스 시스템인 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에 “TSCN”이라는 심볼명으로 상장하였다. 현재 TELESCAN社는 투자의 신용제고를 위한 주식 거래리스트를 다루는 증권거래 브로커 Charles Schwab & Co.를 비롯하여 8만여 가입기관이 있으며, 가입업체 지원 시스템은 신속성을 자랑하고 있다. “Knowledge Express”라고 잘 알려진 주요 TELESCAN운영 방식은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주 전지역을 포괄 서비스하는 기술적 거래처리가 뛰어나다.

### ■ 미국, 미아(迷兒)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

미국의 주요 컴퓨터를 통한 정보(PC통신 등) 서비스업체들은 1백여 만명에 달하는 미아(迷兒)에 관한 정보를 사진 및 기타 상세한 정보를 담아서 온라인 서비스 망을 통하여 제공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 사업계획에 참여한 주요 온라인 정보서비스 업체로는 Prodigy, CompuServe, American Online, NetCom, GEnie, ZiffNet Information Services등이다.

현재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수가 4백만명을 상회하고 전지역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반을 살려 미아를 찾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 ■ ZiffNet Information Services

컴퓨터에서부터 전문 비즈니스 관련 유명 저널들의 아티클정보들을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ZiffNet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확장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정하여 CIM(CompuServe Information Management) ZiffNet 버전을 사용할 때 라이브러리에서 화일을 다운로드하면서 기타 ZiffNet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백그라운드 작업이 원활하게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라이브러리도 많은 개선을 하여 최신의 웨어웨어와 공개소프트웨어가 업로드되어 있어 앞서는 미국의 S/W 개발동향을 참고하기가 손쉬워졌다. 여기에는

△ Ziff-Davis Magazine Ut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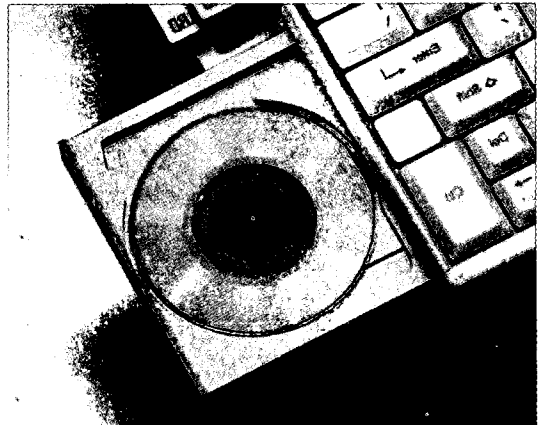
△ zinnNet Custom Utilities,

△ ZiffNet Monthly SharWare Review의 Full-Collection,

△ 특별콜렉션으로써 ZiffNet Essential Software Kits와 Designer Template Collection등이 있다.

### ■ NIFTY-Serve, 전자메일에 음성서비스로 풀 래쉬뉴스 제공개시 ■

NIFTY-Serve는 지난 12월부터 전자메일에 『교또통신 플래쉬 뉴스』와 『교또통신 금융경제 플래쉬뉴스』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외부출장 등 컴퓨터 단말기가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서 플래쉬 뉴스를 청취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워싱턴포스트, 내년여름 전자신문 발행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사는 12월 11일, 내년 7월부터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신문발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가정용 컴퓨터로 워싱턴포스트지의 최신판을 불러낼 수 있는 외에 기사의 내용에 대해 독자상호간에 또 기자, 편집담당자와도 대화할 수 있게된다.

새롭게 설립한 자회사인 디지털링크사가 뉴스 전달 이외의 업무를 담당한다. 종래 전자미디어에 의한 신문, 잡지서비스와는 달리 견출이나 그래픽등으로 보통지면으로는 볼 수 없는 레이아웃 정보를 꺼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래된 기

사도 검색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등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에도 접속된다.

### ■ 뉴욕타임즈 전자미디어 참가에서 고전

미국의 고급지 뉴욕타임즈가 전자미디어에의 참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신문은 본업인 신문에서는 발행부수 117만부를 자랑하며 보도의 질적인 면에서 이미 정평이 나있고, 10월에는 중견지인 보스턴 그로브를 매수하여 양 신문을 합치면 미국 일간지중에서는 최대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전자미디어 서비스에서의 실적은 여전히 빈약하다.

전자 미디어시장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타임즈가 충격을 받은것을 11월 중순 라이벌지인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제휴를 발표한것인데 兩紙는 '94년 7월부터 독자가 신문 기사를 컴퓨터단말을 사용해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수에서 1위와 5위인 兩紙에 타임지가 협공을 받는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 타임즈는 뉴욕주를 중심으로한 대규모 지역전화회사인 NYNEX와 공동으로 내년 봄을 목표로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기사를 팩시밀리로 송신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렇지만 그 규모는 우선 1천명으로 영업상 매리트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타임즈는 10년전 데이터베이스회사인 Mead Data Central사와 제휴하여 그 네트워크인 Nexis를 통해 신문 기사를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한바 있는데 계약속에 Nexis 이외의 전자미디어에 정보를 보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이것이 전자미디어의 본격 참가를 막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 NHK, 하이비전영상 검색시스템 개발

일본의 NHK엔터프라이즈는 26일 방송 등에 사용되는 하이비전 영상을 간단히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간단한 키워

드로 보고싶은 영상을 조사할 수 있어 영상의 재이용이 쉬워지고 영상제작코스트 절감이 연결된다. 영상자료는 단시간에 내용파악이 어려워 데이터베이스화가 문제시 되고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컴퓨터와 외부기억장치, 레이저프린터 등으로 구성되는데 영상자료중 대표적인 화상을 정지화시켜 컴퓨터 외부기억장치에 축적해 둔다. 각 영상은 키워드외에 동식물이나 수중영상, 자연영상 등의 분야, 방송명 등으로 분류되어 보고싶은 영상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나 분야를 입력함으로써 정지화가 컴퓨터 화면위에 표시된다.

6화상부터 12화상까지 한번에 표시가 가능하여 필요한 화상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데 각 화상은 즉시 종이에 인쇄가능한 외에 피사체나 영상의 길이, 저작권의 유무, 카메라방향 등 자세한 영상 정보를 나타내는 기능도 있다.

이번에 데이터베이스화한 화상의 종류는 일출이나 석양, 개기일식, 하늘촬영, 컴퓨터그래픽, 문화유산 등 귀중한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인데 동식물이나 풍경 등도 있다. 동사는 일반인에게 하이비전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바 新시스템을 94년 4월부터 운용하여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 ■ 미국의 ODBMS '93년시장 7110만 달러

미국의 오브젝트지향 데이터베이스(ODBMS)의 시장규모가 '92년도의 3,940만 달러에서 '93년에는 80% 증가된 7,110만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데이터퀘스트와 동사의 일본법인인 일본데이터퀘스트가 19일 (미국/일본 ODBMS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이 조사에 의하면 업계第一人 오브젝트 디자인사를 필두로 오브젝트티비, 바하센트라는 기업이 시장의 Leading Company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ODBMS는 아직 대학, 연구소, 일부 기업에 시험적으로 도입된 단계로 본격도입까지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이 조사는 예측하고 있으며, 오브젝트 지향을 차세대 기술로 주목하여

이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개발환경 등에 적극 이용되어 CAD를 포함한 생산관리나 멀티미디어분야에서 분산처리에 유망하다고 하고 있다.

### ■ 유럽의 UNIX DB S/W 연평균 20% 증가

독일의 시장조사회사인 IDC도이칠랜드사는 UNIX머신위에서 가동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DBMS)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럽수요가 연평균 20%의 비율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이것에 의하면 '92년도, 업계매상은 2억 8800만 달러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41%라는 급증을 보였는데 이것은 UNIX시스템이 유럽에서 차차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으로 IDC에서는 보고 있다.

UNIX베이스의 DBMS 소프트웨어 각사는 모두 20%를 넘는 신장을 기록했는데 그중 Sybase사는 70%라는 고성장을 보였지만 Share에서는 4위에 머무르고 있다. 1위는 1억 3400만달러의 매상고를 올려 시장의 46%을 차지하는 오라클사이며 2위는 4800만달러의 매상고를 올린 인포믹스사가 차지하고 있다.

### ■ 92년 일본의 UNIX RDBMS 시장규모 확대

일본데이터퀘스트가 최근 정리한 보고서인 (일본의 UNIX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시장 1993판)에 의하면 92년에 출하된 UNIX위에서 가동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의 최종사용자 매상을 베이스로한 시장규모는 91년에 비해 68% 증가된 247억엔이 되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RDBMS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 49%를 유지하여 97년에는 1,202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동사는 고성장의 이유로 RDBMS가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을 실현하기위한 중요한 톨로 정착되고 있고 메인프레임이나 퍼스컴에서 가동되었던 대표적인 RDBMS가 새롭게 UNIX위에 이식되고 있는외에 일본시장에서 UNIX가 서버용 OS로 높은 신장을

유지하며 다운사이징이 본격화되어 RDBMS를 중심으로한 분산컴퓨팅의 활성화 등이다.

### ■ 독일북페어에서 보는 유럽의 전자출판동향

세계 최대 국제서적전시회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페어가 지난달 개최되었는데 전자출판부문(일렉트로닉 퍼블리싱)이 신설되어 인기를 모았다. 전자출판부스가 설치된곳은 1호관인데 14개국, 170사가 멀티미디어, 비디오, CD-ROM, CD-I, CDTV 등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시하였다.

주최자는 정보화시대에 즉시 대응하여 전자출판부문을 도입했지만 원래의 활자서적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는데 국제전자출판협회(IEDPC)에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가 출판사가 참가하고 있는바 금번 출판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협회 간부는 전자북은 서적이 아니라는 보수적인 생각도 있어 주최자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금번은 1호관의 반을 차지했지만 다음번에는 보다 넓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자북플레이어는 일본체가 중심이었는데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브랜드가 두드러진다. 미국의 애플컴퓨터가 PDA(디지털 정보단말)인 뉴턴을 전시했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일본세가 압도적이었다.

CD-ROM타이틀의 급증은 눈부신데 영국 출판사인 TFPL의 CD-ROM연감에 의하면 세계에서 금년 상반기에 1천1백개 타이틀이 새로 출판되어 합계 4,731개에 달한다고 한다. 크리스마스에는 6천개를 넘고 내년 상반기에는 6천2백개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CD-ROM의 플랫폼은 퍼스컴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CD-ROM과 멀티미디어 CD 출판사는 세계에서 2,825사에 달한다. 매킨토시용 타이틀 출판수는 작년에 배증되었으며 '93년은 상반기에 이미 30증가를 기록했다고 한다. 애플의 멀티미디어 디벨로퍼스 프로그램은 금년초에 미국에서 공급된바 유럽에서는 곧 발매될 예정인데 이것도

기록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D-I타이틀도 보이기 시작했으며 CDTV는 정 체된 상태에서 코모돌사의 CD32플레이어로 대체 되고 있다. VIS는 작년 미국에서 약 70타이틀이 발매되었지만 CDTV나 CD-I와 마찬가지로 소강 상태라고 한다. 이 연감의 편집자는 가격이 하락 되고 있는것과 CD-ROM 유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급증의 요인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CD-ROM의 개발업자, 출판사, 디 스트리뷰터가 많다는 점도 있는데 대규모 가전메 이커인 필립스, 톰슨, 그룬디히 등과 함께 브래태 니커, 랑겐사이트, 프랑크프루터 아르케마이네 등 의 출판사와 신문사도 참가해 활발한 상태를 보 이고 있었다.

### ■ 미국경영자, 멀티미디어시대 조기도래 예측

미국의 정보수퍼하이웨이는 대도시에서는 2군 데가 경쟁하며 쌍방향 멀티미디어시장은 금세기 말에 연간 1조달러의 비지니스로 개화된다. 미국의 대규모 회계사무소인 디트로이트 토슈의 조사 에 의한 것으로 미국의 정보, 전자관련 경영자가 멀티미디어시대의 조기도래를 예측해 사업의욕을 강화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서비스에 있어서는 기술, 가격면 등 때문에 회의론도 강하지만 기업사이에서는 낙관론이 주류가 되고있음을 나 타낸다.

조사는 전미국 100사의 경영자, 매니저급을 대 상으로 행했는데 그 비율은 회장/사장이 36%, 부 사장급이 33%, 매니저급이 31%였다.

업종구성은 통신이 30%, 방송/CATV가 26%, 가전이 19%, 신문/출판이 16%, 전자가 9%였으 며 조사시점은 벨아틀란틱에 의한 TCI 매수발표 이전이었지만 최초 조사내용을 회답자에게 되돌 려 다시 질문에 답하는 텔파이법을 채용하여 이 매수 발표후의 변화도 반영시켰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멀티미디어 제품, 서비스가 VTR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보급되는 시기로 98 년부터 2천년을 든것이 58%, 2천년전부터 2010 년이 30%, 2010년 이후가 12%였다. 조사를 주관

한 이 사무소 통신전자서비스 전미디어액터인 J.그 레이머씨는 2년전 조사에서는 2020년, 2030년으 로 보는 경영자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급속한 변 화라고 멀티미디어시대에 거는 경영자의 자세변 화를 지적하고 있다.

크레이머씨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보급열쇄 는 가격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의 월간 기본요금은 25달러, 기기에 대한 관심으로 휴대정보단말 보 급이 가속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크레이머씨는 또한 가정근처에 노드형태로 2개 의 정보수퍼하이웨이가 설치될 것에 주목해야 된 다고 하며 벨아틀란틱의 TCI매수발표 후 모든 사 람의 견해가 조급했다고 하고 있다. 성공조건으 로는 다양한 업종간 전략 제휴를 중시하는 것과 정부의 규제관련 가전제품은 일본 등 극동에서 공급받아 소프트웨어로 미국이 승자가 되는바 유 럽과 일본으로의 진출은 미국내 보급이 일단락되 는 2천년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 소니, 미국에서 CD-ROM 5천만매 생산

Sony Corp of America는 현지시간으로 12월 2일 미국에서의 CD-ROM생산 5천만매를 달성해 동 사 생산법인인 디지틀 오디오 디스크사(DADC) 에서 현지관계자를 초대한 기념식과 공장견학을 실시했다.

슈르호프회장은 CD-ROM이 젊은 멀티미디어 산업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 인포메이션 수퍼하이 웨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 면서 소니에게 있어서 TV가 의미하는 것처럼 멀 티미디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디어사업 모 두의 가교로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CD가 음 악의 오락방식에서 혁명을 일으켰던것과 같이 CD-ROM은 정보, 교육, 오락분야에서 쌍방향 시 대를 열것이라고 말했다.

DADC의 제임스 폴리슈회장에 의하면 CD-ROM 생산에 착수했을때의 월산 4천매가 현재 5 백만매로 확대되었다고 하였으며, 소니의 CD-ROM출판을 담당하는 소니 일렉트로닉스 퍼블리

쉬사의 오라프 올레프슨사장은 5년전 2백타이틀이 시장에 있었던 CD-ROM은 금년에는 3천7백타이틀로 늘어났으며 94년중에 6천타이틀로 늘어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출판의 급속한 확대를 예측하고 있다.

### ■ 리쿠르트, 컬러화상 DB구축 S/W개발

일본의 리쿠르트사는 퍼스컴을 사용하여 최대 10만건의 컬러화상을 수록가능한 데이터베이스구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12월 1일에 발매한다. 스캐너를 통해 컬러화상을 비디오디스크에 수록한 후 필요에 따라 퍼스컴에 의해 검색, 가공할 수 있는데 건설업계에서의 설계도와 완공사진, 유통업계에서의 상품사진 등 대량의 화상을 이용하는 기업용으로 화상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다.

리쿠르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PHOTO CENTRE」인데 애플컴퓨터의 매킨토시에서 가동된다. 시스템은 매킨토시와 컬러프린터, 스캐너,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를 접속하여 구성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14만 8천엔이다.

각 화상에는 지명과 상품명, 특징 등 여러개의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어 여러가지 각도에서의 화상검색이 가능해지며 수록한 컬러화상을 매킨토시위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매킨토시를 사용해 작성한 컴퓨터 그래픽과 화상을 합성하거나 DTP로 작성하는 문서용으로 가공할 수 있다.

### ■ 일본, CD-ROM전자출판 컬러화약 제정

CD-ROM에 의한 전자출판 보급을 위해 2년전 설립된 일본의 DPWING컨소시엄은 25일 기록형식인 EPWING규약을 개정하여 컬러화 대응으로 함으로써 연속재생이 가능한 확장판 제2판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EPWING 제2판은 기본기능의 확장(간이표구성/계층목차의 추가 = 일반서적, 메뉴얼 등에서 편리, 컬러화면/PCM음성의 추가 = 컬러백과음

등을 위해)과 이를 바탕으로한 EPWING/XA규약과 EPWING/ST규약으로 구성된다.

XA는 XA음성, 화상메뉴를 내용으로 하여 장시간 음성이 필요한 서적용 규약이 되며 ST는 버튼선택, 연속재생을 내용으로 하여 미술화집음 등의 규약이 된다.

EWING규약 제21은 텍스트중심의 모노크롬 표시, 키워드 검색을 특징으로 하는바 사전을 중심으로한 CD-ROM화를 추진해온 컬러도감, 미술집 등의 서적 전자출판화 요망이 높아지고 있어 제2판을 제정하여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 ■ 애플, CD-ROM이용 신서비스 개시

미국의 애플컴퓨터는 GM의 자회사로 정보처리회사인 EDS, 마케팅기업인 레드케이트 커뮤니티 게이션사와 제휴하여 퍼스컴으로 CD-ROM에 의한 카타로그 정보서비스 실험을 시작한다.

12월 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으로 애플은 3만명의 유저에 어페럴회사인 LL, 빈사, 티파니사 등 20여개 회사의 카타로그 정보를 CD-ROM에 집어넣어 제공하는바 유저는 컴퓨터를 이용해 상품을 보고 Call Free전화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케팅면에서의 컴퓨터 이용에서는 이미 광고 등에서 시도가 되고 있지만 애플의 시도는 멀티미디어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활발한 CATV업계에 대한 컴퓨터업계의 대항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 ■ 애플과 후지쯔, 멀티미디어에서 제휴

일본의 후지쯔와 미국의 애플컴퓨터는 11월 22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제휴했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후지쯔의 FM타운즈와 애플 매킨토시의 동화(움직이는 그림) 데이터를 상호 공개함으로써 양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에의해 소프트웨어 하우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후지쯔와 애플의 양사 하드웨어간에서 간단히 이식될 수

있게되어 멀티미디어분야에서 큰 공통기반이 확립되게 된다. 양사는 93년초부터 멀티미디어분야에서 폭넓은 제휴교섭을 추진해왔다.

금번 제휴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2대 메이커가 공통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멀티미디어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서드파티를 끌어들이는 큰 세력을 창출하는데 있는데 공동전선을 추구함으로써 장래의 거대한 시장인 멀티미디어분야에서 일거에 주도권을 확립한다는 작전이다.

멀티미디어는 수치와 텍스트 데이터 뿐만 아니라 동화상과 음성데이터도 대화형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데이터형식이 매우 어렵다. 그 때문에 윈도우즈를 베이스로 사양을 확대하려는 마이크

씨 강력한 표준사양 확립으로 후발메이커에 대해 향후 표준화작업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FM타운즈와 매킨토시 사이의 CD-ROM타이틀 음성, 화상데이터사양을 상호 이식하는 컨버트틀을 제공한다.

또한 애플은 매킨토시의 멀티미디어대응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퀵타임의 동화상 재생/압축기술을 후지쯔에 라이선스 제공하여 기본적인 동화상 데이터가 양사의 컴퓨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게 된다. 양사는 더우기 칼레이더가 제안하는 데이터사양등 멀티미디어분야의 선진사양과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상호 공개하여 제휴관계를 강화할



로소프트를 비롯해 애플과 IBM이 합병으로 설립한 칼레이더, 국제멀티미디어협회(IMA) 등이 각 레벨에서의 사양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금번 FM타운즈로 일찌기 멀티미디어시장에 참가한 후지쯔와 매킨토시로 그려피컬한 시장에 실적이 있는 애플의 양사가 의견일치를 본 것인데 양사가 제휴관계를 맺음으로

생각이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종래의 프로그래밍방법으로는 개발이 곤란함과 동시에 동화상, 음성 등의 데이터 작성에 방대한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이것이 소프트웨어 유통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양사의 제휴는 시장참가를 노리고 있는 소프트웨어하우스에 희소식이 되어 향후 멀티미디어



어분야의 큰 조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 코닥, 멀티 포토CD를 개발

미국의 이스트만코닥은 사진과 음성과 문자를 입력가능한 콤팩트디스크를 개발했다.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을 1매의 CD에 수록한 포토CD의 제작서비스를 하고있지만 디스크위의 사진에 소리나 문자를 중첩시켜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새로운 CD를 사용하면 퍼스컴과 워크스테이션으로 새의 사진과 울음소리, 새의 생식기 등을 기록한 전자출판물을 개인이 작성할 수 있게된다.

신개발한 포토CD 포트폴리오에 사진, 음성, 문자를 동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애플의 매킨토시를 이용해 퍼스컴에 입력한 음성과 문자가 포토CD에 수록된 어느 사진에 대응하는 것인지 미리 편집을 한다.

그후 편집된 사진, 음성, 문자의 데이터를 썸마이크로 시스템즈사의 워크스테이션에 입력하고 코닥의 PCD라이터 200이나 일본빅터의 퍼스널롬메이커를 이용해 포토CD 포트폴리오용 디스크에 기록하면 된다.

### ■ 일본, 멀티미디어저작권 집중관리

멀티미디어구상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하여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발생의 예방, 분쟁처리법을 검토하고 있던 일본 문화청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소위원회는 4일 보고서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데, 현재 고려되는 멀티미디어는 음악, 저술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이 인정되는 다양한 것을 이용하지만 각 분야에서 저작권문제를 취급하는 조직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각분야별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체제정비를 제안하고 있고 각분야를 횡단하여 저작권문제를 총괄하는 저작권권리 집중관리기구(가칭)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확립된 정의는없지만 영상, 음성, 문자 등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로 취급하는 시스

템인 만큼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가령 멀티미디어에 각종 정보를 탑재할 경우 정보를 판매하는측은 그 정보에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는 일일이 알아야 하며 저작권자측에서도 이 새로운 미디어에서는 어떤 형태로 작품이 유통되는지 알 수 없는 등 미지수 부분이 크다. 음악의 경우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누가 저작권자인지를 알 수 있지만 영상, 사진 등의 분야에서는 이런 조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 NYT와 애플, 베트남전쟁을 CD-ROM화

베트남경제 제재의 해제와 함께 미국에서 베트남전쟁이 신선한 화제가 되고있는데, 미국 뉴욕타임즈, CBS뉴스라는 미디어 2사와 애플컴퓨터는 월남전쟁의 멀티미디어사전을 공동제작한다. CBS가 방송한 베트남전쟁의 뉴스와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베트남전쟁 관련기사 등을 CD-ROM에 수록하여 애플이 94년 말부터 판매하는 것이다.

CD-ROM화 되는 것은 CBS가 보도한 베트남전쟁 관련 비디오와 뉴욕타임즈의 7백건 이상에 달하는 베트남전쟁 관련기사인데 CD-ROM대용형 퍼스컴에 이 전자사전을 넣어 보고싶은 정보를 퍼스컴 화면에 호출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사전의 편집은 CBS이브닝뉴스의 던 라자씨와 뉴욕타임즈의 워싱턴지국장인 R.애플씨.

베트남전쟁은 아직도 미국 국민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어 행방불명이 된 미국병사를 찾는 가족과 친구도 많기때문에, 3사는 멀티미디어사 1. 전의 제 1호로써 국민의 중대한 관심뉴스인 베트남전쟁을 테마로 결정한 것이다. 향후 고 존.F.케네디 대통령등도 후보가 될것으로 보인다.